추월산에 케이블카 추진…찬반 논란 거셀듯

정상~보리암 1.31㎞ …민간투자사업 360억원 투입 예정
다음달 주민설명회…자연환경 훼손·경제효과 의견 엇갈려

'전남 5대 명산'으로 꼽히는 담양 추월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1000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담양호 관광지(추월산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하고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달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추월산 제1주차장에서 정상까지 1.385㎞ 구간에 상하부 승강장과 높이 21m, 31m짜리 지주 2개를 설치한다는게 기본계획의 골자다.

상부 승강장을 중심으로 추월산 정상~상부 승강장~보리암에 이르는 1.31㎞ 구간에는 모노레일을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36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추월산~금성산 4.2㎞ 케이블카의 1단계 사업 성격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케이블카 등이 운행되면 담양호의 잔잔한 아름다움과 일출·일몰로 유명한 추월산의 비경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어 연간 관광객 100만 명에 100억원 안팎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전국 19개 관광용 케이블카의 상당수가 흑자를 내고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여수 해양케이블카,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등 전남지역 케이블카 인기도 사업 추진에 한 몫 했다.

하지만 자연환경 훼손과 경제 효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 기존 등산로 주변 영세상인들의 상권 약화 등은 악재로 꼽힌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선 환경과 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현상 변경 등 까다로운 심의를 줄줄이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약자 배려 등은 긍정적 측면이지만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상권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수익과 보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kwangju.co.kr

"미래 세대 위해 평화를"

2019 순천 평화포럼이 24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개막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 평화포럼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를 주제로 25일까지 국내외 평화 전문가들이 참석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한국당 5·18 진상규명위 예산 삭감 요구 논란

내년 6억9000만원 삭감 주장…송갑석 의원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2020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사업비 49억 8000만원이 과도하다며 6억 9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 출범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사업비 등이 반복적으로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전년 수준인 42억9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6억9000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망언과 역사왜곡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안면몰수한 작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송 의원은 "5·18 폄훼 망언자들을 감싸고 온갖 역사왜곡을 자행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해 온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예산을 빌미로 광주시민과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뜻깊은 날에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행태는 어렵게 이뤄낸 여·야 합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40년간 진상규명을 염원해 온 국민들께 더는 부끄럽지 않도록 관련 예산 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진상규명위 출범 및 향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지역대학, 방재안전 전문인력 양성

전남대·호남대 대학원 설립 협약

광주시와 지역대학이 손잡고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광주시와 전남대, 호남대는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정병석 전남대 총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모범도시 광주 구현을 위한 방재기술 대학원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재난안전분야 민간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재난안전추진단'이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약속하며 함께 자리했다. 이날 협약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돼 왔다.

전남대와 호남대는 각각 내년 상·하반기에 방재기술 대학원을 개설해 전문인력 양성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상호 협력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재기술 대학원에서는 재난안전분야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법규, 도시방재학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한다. 방재안전 기반의 인문, 사회, 공학, 경제 등 실무 중심의 과목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계엄문건 불기소 통지에 윤석열 직인"

군인권센터 "관여안했다는 윤총장 비겁"…검찰 "결재 안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형식적 문제일뿐 검찰 지휘체계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문건 사건도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할 수밖에 없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김정은-트럼프 각별'…친분 강조하며 대미 압박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분을 다시 강조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화해 분위기의 동력인 '정상간 궁합'을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자신들을 만족시킬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적어도 연말까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정도의 고강도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24일 담화에서 "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조미(북미)수뇌들이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또다시 언급하였다는 보도를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며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취재진과의 문답 중 "나는 그(김 위원장)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잘 지낸다"며 "나는 그를 존중하고 그도 나를 존중한다"고 말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반응한 것이다.

김 고문은 이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관계가 굳건하고 신뢰심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각별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조미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임야
바로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투자자 모심
급매물/경매특수물건
법적으로 보장.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땅 891㎡ 주택·창고 137㎡ 전망 좋음 2억5천
• 곡성군 옥과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음 1억9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 건너편 680㎡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농장 적합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959㎡ 전원생활에 좋음 2억8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접 48900㎡ 펜션 14개등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광천파출소 건너편 준주거 1259㎡ 병원 등 다용도 76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음 1억3천
상가건물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접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동구 산수동5거리 대로접 준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5억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